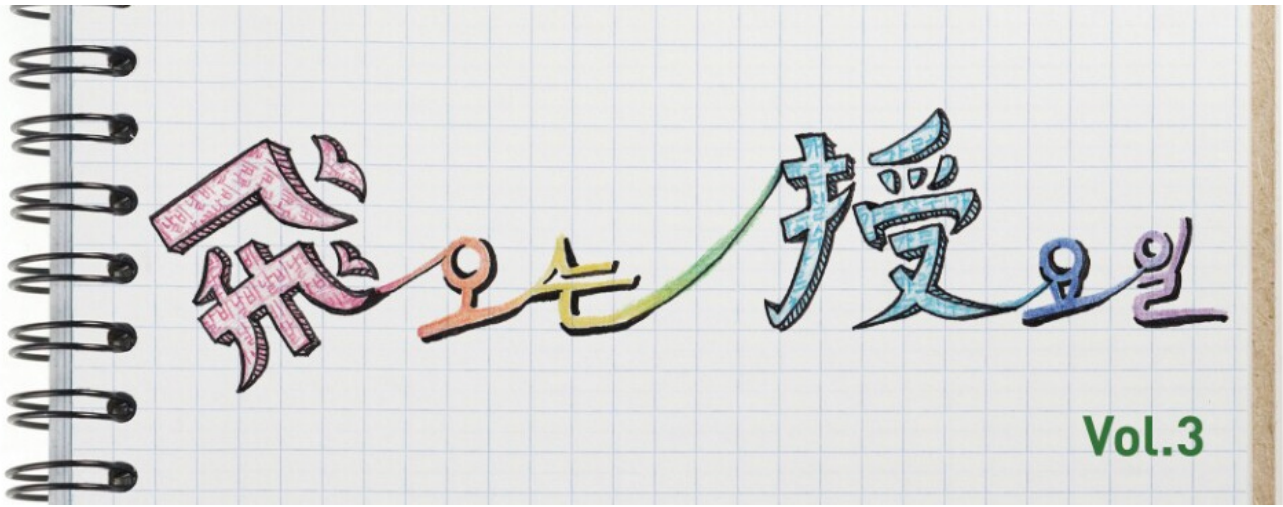




첫번째 이야기

“행복했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과 주위를 밝게 만드는 편안함으로 어떤 분일까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 먼 발치서 얼굴만 익혔던 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어떤 분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즐겁게 마주 앉아 속 얘기를 들어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비 오는 수요일’ 팀이 만나본 분은 바로 ‘섬김의 수호천사’ 박미키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부부는 3월 3일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 한편으로는 아쉬운 인터뷰였습니다.

Q. 간단한 자기 소개와 근황은?

A. 2006년에 남편(박종훈 집사) 따라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침 순식구의 권유로 BEE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JDS도 신청하였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BEE로 인도해주셨네요^^ 지금은 세미나 인도 및 루체와 헵시바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비아 과정 로마서 수업 때부터 기도모임에 나왔었고 남편이 미국 공무원이라 도중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년 전에 입국했습니다. 올해 다시 본토로 발령받아 3월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셋 다 미국에 있는데 두 아들(첫째, 막내)은 지금 대학 졸업반이고 가운데 딸도 미국에서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Q.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A. 남편이 워싱턴DC에서 7년 근무했었고요...

Q. 이민을 가셨던 거군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A. 네...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꿈’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들 하루 종일 식당 일에만 매달려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이민 가서 외로운 마음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 예배도 자매들과 돌아가면서 잠깐씩 틈을 내 다녀 올 정도로 일에 묶여 지냈습니다. 한번은 예배 때 주일 학교를 예쁘게 섬기고 있었던 젊은 부부(남편이 군인)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남편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20대 청춘을 식당 일로 보내면서 주방장들도 자주 그만두었기에 일식, 양식, 한식 등 갖가지 안해 본 음식들이 없었고 온갖 허드렛일들 속에 참 힘겹게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연히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알게 되었는데 저랑 마음이 맞았던 거죠. 남편은 초등학교 때 이민 갔다가 입대하고 광으로 발령 받고서는 한인식당을 찾아 저희 식당으로 오게 되었던 거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믿음직했고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식구들 몰래 둘이 한국으로 나와서 약혼도 하고 바로 광으로 돌아가서는 두 달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 식구들의 반대도 있었고 갑작스레 한 결혼이었지만 어찌 보면 꿈에 처음 와서 예배 때 품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꿈 이민 생활은 많이도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남편!!!)으로 인도해주셨어요.

Q. 결혼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요...?

A. 남편이 공군이었는데 결혼 후 바로 오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2년쯤 살게 된 거죠. 첫아이를 임신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도 출산하자마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어요...(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셨지만 차분한 목소리 너머로 묵직한 슬픔이 전해졌다) 그일 후로 남편이 크게 달라졌어요. 그 동안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 아이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아이는 잃었지만 저희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이 바로 서게 되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발령 받고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아이도 몇 년 동안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 주셨어요. 1~2년 터울로 건강한 3남매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독일로, 다시 미국으로 임지를 옮기면서 생활하였는데 그때마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교회마다 교단에 상관없이 잘 적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세상일은 전혀 거들떠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매달렸던 시기였어요. 작은 교회들이라 남자 성도가 귀했는데 남편이 한 몫 했고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잘 따르고 모임마다 다 참석하는 그런 열심 일군이었죠. 어린 믿음이었지만 그때는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Q. BEE와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A. 2006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에서부터 하목사님 설교를 들어왔던 터라 꼭 온누리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도 이촌동으로 정하고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여러 훈련 프로그램 중 BEE를 소개 받게 된 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세미나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또 새롭게 신앙이 깊어지는 체



힘을 했습니다. 그 동안 신앙생활이 맹목적인 헌신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바탕이 된 좀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까.....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그전에는 오히려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BEE 이후로는 ‘말씀’ 그 자체로부터 복음을 확인하고 모든 일들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자리잡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은 바빠서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곧이어 2008년도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순식구들과 함께 수강하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열심뿐이었던, 더구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던

신앙인이었다면 그 후로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녀들에게도 아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열심히 드리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아이들과도 많이 화해했고요. 다시 한국으로 발령받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희 부부에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보내면서 올바른 신앙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웠던 중요한 시기였죠. 남편은 이후 BEE에 폭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신학을 전공하기까지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만 마쳤지만 지금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신학공부를 계속 하고자 하는 소망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Q. 남편의 비전 혹은 부부가 앞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은?

A. 남편은 20년 미공군으로 복무했고 지금은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40년 근무를 채우고 나면 퇴직이 가능해집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가장 이른 나이에 퇴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남편의 비전은 다름이 아니고 BEE를 통해서 품게 되었고 BEE 인도자로서 선교의 역할을 이루어 가고 싶은 소망입니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세미나를 인도하고 선교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합니다. 나아가 저는 특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신학을 마저 마치고 그리고 퇴직을 한 후면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겠지요. 그 후에 정말 부부가 할가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둘이 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혼 때보다도 지금이 참으로 더 행복해.’ 살면서 한 때 품었던 많은 욕심들도 이제는 사라지고 걱정거리들도 사라지고 하나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Q. 나에게 BEE란?

A.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함,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함.

Q. BEE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A. 미국에 들어갔다가 재작년 다시 나왔을 때 느꼈던 점은, 우선 돌아올 수 있고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요. 저의 신앙이 식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모임이 예전보다는 더 커지고 테이블도 지역별로 여러 곳으로 나뉘다 보니 예전 기도모임의 뜨거움이 덜해진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

다. 로마서 학생 때 기도모임에 처음 나와서 느꼈었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별로 해당 지역에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은 참 좋았어요.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직접 보고 오는 것이 기도가 더 잘되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활발히 아웃리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BEE 기도모임이 앞으로도 각 테이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하나되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Q.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A. 가족, 섬김의 삶, 건강.

Q. 자신의 묘비명을 정한다면?

A. “행복했습니다.”

Q. 인터뷰 중 못 다 한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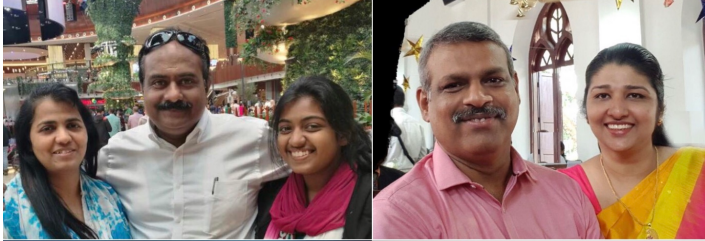
A. 가족과 같은 BEE 공동체가 그리워 질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친구보다 더 가깝고 같은 믿음의 식구이기에 따뜻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언니처럼 잘 해 주셨던 권사님들,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지만 많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집사님께 걸 맞는 묘비명입니다. 인터뷰 글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에도 집사님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품고 있는 반 백 년 넘는 삶은, 그 모든 무게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었음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껏 누렸던 어느 행복보다도 더 큰 하늘의 복이 집사님 부부 앞길에 놓여있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해 마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BEE 식구들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집사님의 마음은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한숙영, 글 정리: 김종영,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짧은 겨울 방학을 마치고 비오는 수요일이 Vol 3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읽어 주시고 좋은 답글도 부탁드립니다.
- 2월 2일에는 스리랑카 콜롬보 마르가야 목회자들 24명의 DPM 졸업식이, 9일에는 필리핀 바우앙 방주미션신 학교 학생 14명의 DPM, DCL, DBS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 2018년 총회가 지난 3월 3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2018 봄학기 온비아가 개강을 했습니다. 모든 세미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케냐인 2 unit(Zeddy Jerotich Kembi, Shadrack Viere Savatia), 도미니카인 1 unit(Jedeon Enoc Rodriguez Tejeda), 남수단인 1 unit(Tabu Patrick Pierre John), 인도인 6 unit(Sharmila Roy, Shibby Thomas, Thomson Kurian/Vilzy M. George, Sajeev Frederick/Cyndia, John Samuel/Anita, Mathew Alexander/Anshu Cherian)등 10 unit이 BEE Korea의 선교사로 새로 허입되었습니다. ·

				
				
Goodness-케냐	Shadrack- 케냐	Jedeon-도미니카	Sajeev and Vilzy with daughter Carolin -인도	
John-남수단	Sharmila Roy(Jolly) -인도	Shibby Thomas-인도	Samuel John (Roy) and Anita with Ruben and Ruel - 인도	
			Sajeev Frederick, Cyndia Frederick - 인도	
			Mathew Alexander (Monu) and Anshu with Ian, Jon and Gianna -인도	